

문화

“현대화된 단청문양으로 새로운 디자인 선보였어요”

텍스타일 디자이너 강수경 씨

전통문화콘텐츠기업 마인드디자인(대표 김민지)은 2014년 불교박람회에서 사찰의 단청문양을 활용한 스타프, 스카프, 카드지갑, 파우치 등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40~5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이 제품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품 개발을 위해 1년반 준비 기간을 거치는 동안 마인드디자인은 한국을 일으키는 디자인을 만들자는 취지로 ‘라이징코리아 디자이너’를 선정해 제품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 번째 디자이너로 선정된 주인공이 바로 텍스타일 디자이너 강수경 씨(34)다.



마인드디자인 ‘라이징코리아 디자이너’로 선정된 강수경 씨는 사찰문양을 응용한 제품을 불교박람회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인드디자인과 손 잡고

스카프 등 신제품 디자인

불교박람회서 호평 받아

문양을 제품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 제 디자인을 상품화하는데에는 마인드디자인 상품기획총괄을 맡은 배보람 팀장의 노고가 컸어요. 불교 디자인과 전통 디자인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마인드디자인의 방향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 세계에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마인드디자인은 앞으로 한옥 등 다양한 전통 문양들을 트렌드에 맞는 상품으로 상품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서양식 디자인을 전공한 강 씨는 전통문양을 디자인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은 그녀의 성장배경이 큰 몫을 차지한다. 강 씨는 재가수행자이자 한국화가인 강영원 씨의 딸이다. 또 50여년 장좌불와 수행과 일종식을 지켜온故정화 스님은 오촌당숙이 된다.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아버지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늘 아버지를 따라 화실에 놀러갔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은 무조건 화가였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때 화실에서 보았던 화려한

색채들이 저한테 많이 영향을 주었죠. 지금도 제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색상이에요. 화려한 색채를 현대적 감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을 일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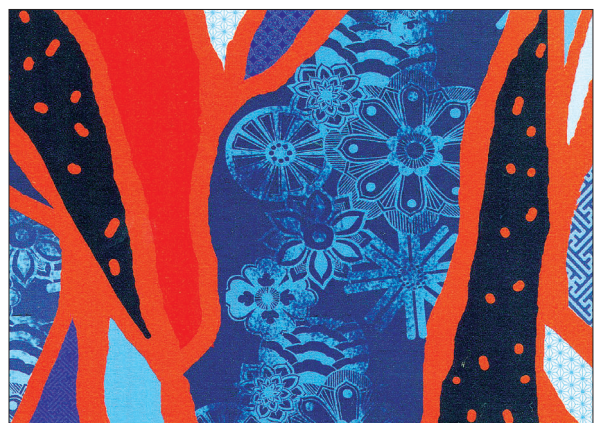
또한 정화 스님이 주석하던 전남곡성 태안사는 강 씨의 어렸을 적 추억이 묻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수경(秀京)이라는 이름과 우선(宇宣)이라는 법명도 정화 스님이 지어주었다고. “어렸을 때 태안사에 부모님들이랑 자주 들렸어요. 스님이 무릎에 앉혀 놓고 용돈을 주셨던 기억이 있죠. 지금 스님께서 지어주신 법명인 우선은 하늘에서 뜻을 잘 펼치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제 뜻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강 씨는 현재 ‘포카 넷’이라는 디자인 회사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친구와 함께 디자인 회사를 창업해 디자인 작품과 상품을 동시에 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마인드디자인과 함께 전통문양을 소재로 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도 매진할 거구요.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영108인에 가입해 앞으로 불교계와도 꾸준히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불교박람회에서 판매된 단청문양 디자인 제품들.



드로잉 작품에 단청의 금문을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절경 속에 간직된 아득한 시간의 흔적

승가대사의 행적 담긴 고찰

승가사(僧伽寺)는 삼각산 비봉 아래 위치한 고찰이다. <동문선> 권 64에 전하는 이에(李預)의 ‘삼각산중승가사굴기(三角山重修僧伽記)’를 통해 그 창건 연원을 보자.

최치원(崔致遠) 공의 문집을 보면, “옛날 신라 시대에서 낭적사(狼迹寺)의 중수태(秀秀)가 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익히 듣고, 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좋은 장소를 골라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들을 조각하여 얼굴을 묘사하니 대사의 얼굴이 더욱 우리나라에 비치었다. 국가에 천지의 재물이 있을 때나 수재나 한재 등 모든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올려 이를 물리치면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대사란 승가대사(僧伽大師 627~708)를 말한다. 기문을 쓴 고려의 문신 이에는 이 기문의 앞부분에 승가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승가대사는 서역의 승려인데 나이 30에 당나라로 와서 신이한 법력으로 중생교화를 하였고 왕실마저 그에게 깊이 귀의하여 귀하게 우러렀다는 내용이다.

관음의 화신으로 불렸던 당나라 고승 승가대사의 수행력과 중생구제 원력에 감화된 신라의 수태대사가 삼각산 남쪽에 절을 짓고 승가대사의 존상을 만들어 모셨다는 것이 승가사 창건의 주요 내력인 것이다. 승가사 승가굴(약사전에 모셔진 승가대사상은 보물 1000호로 지정되어 있다. 승가사는 그 역사만큼이나 풍경도 장엄하다. 뒤로 우뚝한 봉우리들이 사람의 기상을 치솟게 해 주고 앞으로 광활하게 트인 서울 풍경이 후련하다. 조선의 선비들도 한양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승가사를 자주 방문했다.

차사문유승(此寺聞惟夙)
제군회역량(諸君會亦良)
수제평부초(樹齊平俯杪)
성대근반광(星大近攀光)
굴불무단소(窟佛無端笑)
봉비만고창(峯碑萬古蒼)
동소사자념(洞簫徐子念)
야반숙생량(夜半 生涼)

이 절을 들은 지 이미 오래라 제군들의 모임이 역시 훌륭하군. 나무가 가지런해 평평히 가지들 내려다보고, 별이 커서 가까이 빛을 휘어잡겠네. 굴속의 부처는 무단히 웃는데 봉우리의 비석은 만고에 푸르구나. 서자의 통소 소리 듣고 나서 한밤중에 홀연히 서늘해지네. -이덕무 ‘승가사’ <영처시고(處詩稿二)>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⑫ 이덕무와 승가사



이덕무 등 조선의 선비들은 승가사를 자주 방문했다. 삼각산 승가사 승가대사상.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시다. 이덕무는 박학다식했으나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로 크게 등용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지월,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 등의 북학파와 실학자들과 교류했고, 기균(紀均)·이조원(李調元)·이정원(李鼎元)·육비(陸飛)·엄성(嚴誠)·반정균(潘庭筠) 등 청나라 석학들과도 교류하였다.

시의 내용에 따르면 화자(話者)는 혼자 승가사를 방문한 것이 아니다. 여럿이 흥겨운 마음으로 수려한 경치 속의 절,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명승을 방문한 것이다. 잠시 다녀 온 것도 아니고 하룻밤을 유숙하며 승가사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수련에서는 유서 깊은 절은 벗들과 함께 찾아 온 정황을 소개하고 함편에서 절의 풍경을 소개한다. 수목이 울창하여 나뭇가지가 서로 크기를 다투고 밤에는 별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며 더욱 밝은 빛을 발한다니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 속의 승가사 풍경이 그려지지 않을 수 없다.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5살의 나이에 세종에게 불려가 ‘삼각산’을 주제로 시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다. 그 어린 신동은 “삼각산 높은 봉우리가 하늘을 찌르니/ 그 위에 올라 북두성 견우성도 잡을 수 있겠네/ 바위굴은 비와 구름만 만들 것이 아니라/ 왕조를 영원히 평안토록 할지 어다”라는 절구를 지은 바 있다.

세종은 왕비 소현왕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승가사와 흥천사 진관사에서 불공을 하게 했고, 비의 병이 낫자 보은으로 절의 중수를 도왔다. 이 때 승가사의 승가굴이 약사전에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아무튼, 시는 경연으로 접어들어 굴속 부처(승가대사상)의 미소와 비봉의 비석(진흥왕순수비)이 상징하는 무량한 시간의 이미지로 더욱 아득하게 확장된다. 절경 속에서 아득한 시간의 흔적을 찾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 시의 ‘맛’이라 하겠다. 그 무량한 시간을 느끼는 서정은 남종의 파리소리로 인해 더욱 처연해 지는 것이다. 서정적 서사가 조화를 이루며 기승전결이 잘 짜인 시다.

‘노파와 같은 모양’의 승가대사상

이덕무가 이 시를 지은 내력을 알게 하는 글 한 토막이 그의 문집에 전한다. “동지(同志) 5~6인과 함께 삼각산(三角山) 서쪽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닐 일이 있었네. 절 북쪽에 동굴(洞窟)이 있고 그 가운데는 가부좌(伽趺坐)를 하고 있는 부처가 하나 있는데, 파리하여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데다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마치 노파(老婆)의 모양 같더군. 그 뒤쪽 석벽(石壁)에는 큰 연꽃이 새겨져 있으나 다 떨어져나가고 겨우 글자나 알아볼 수 있었네. 거기에 ‘태평 사년 갑자(太平四年甲子)’라고 씌어 있었는데, 이는 아마 고려 현종(顯宗) 때인 거란의 성종(聖宗) 태평(太平) 4년으로, 금년(을유)까지를 계산해보면 8백 2년이 되네.” 이덕무가 족질(族姪)인 복초(復初) 이광석(李光錫)에게 보낸 편지글인데 <아정유고(雅亭遺稿) 7>에 전한다. 승가사에 대한 기억을 전하는 글인데, 실학자다운 관찰력과 고증의 태도가 드러나는 글이다. 승가대사상을 ‘노파의 모양’으로 비유한 것도 재미있다. 편지글에 적은 승가사의 인상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의 다른 문집인 <양엽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범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불공예식범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바로보인 선문염승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승,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3종 65권의 저서 출간!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